

임대업 뛰어드는 청년들…7년새 18%↑

갭투자 열풍 속 30대 미만 7년새 두배늘어 지난해 7065명
자산 증여 수혜 순수창업과 대비…부모가 자녀명의 차용도

지난해 아버지로부터 총장로에 있는 건물 두 채를 물려받은 A씨(35)는 새로운 직업을 얻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다. 의류와 신발을 판매하는 업을 하기위해 자신의 건물에 임점하고 나머지 공간은 세를 놓고 있다. 경기 불황 탓에 공실률이 많지만 세를 주고 적잖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B씨(29)는 자신의 건물을 세주고 월 평균 800만원 가량 수익을 내고 있다. 아파트임대사업을 하기 전 직장생활을 할 때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있

는 것이다. 또 임대사업 확장을 위해 인근에 지어지는 새 건물도 매입할 계획이다.

A와 B씨처럼 광주시 총장로와 상무지구, 수완지구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뛰어든 20·30대 청년들이 최근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의 ‘창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30세 미만의 부동산 임대업 신규 사업자는 2009년 2932명에서 2016년 7065명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임대업 신규 사업자 중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과 증가폭은 모든 연

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3.4%에서 2016년 38%로 17.6%포인트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50세 이상은 8.3%에서 14.6%로 6.3%포인트, 40세 이상은 10.9%에서 20.8%로 9.9%포인트 늘었다. 60세 이상의 신규 비중은 8.2%에 그쳤으며 2009년 대비 2.5%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청년 임대업 신규 사업자 증가가 정상적인 아닌 변형된 구조의 결과물이라는 데 있다. 주택이나 상가로 임대 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임대업은 사회 생활을 갓 시작한 30대 미만 청년들이 뛰어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장년층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부동산 임대업에

청년들의 창업 비중이 큰 것은 OECD 국가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며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한다.

또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차액을 투자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 열풍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한 관계자는 “미래를 생각하면 청년 임대업자가 늘어나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젊은이들이 제조업에 뛰어들고, 여기에 정보기술(IT) 같은 신성장동력 사업을 접목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52.40 (+6.96)	↑ 금리 (국고채 3년) 2.15% (+0.02)		
↑ 코스닥 709.11 (+7.97)	↑ 환율 (USD) 1115.60원 (+3.70)		



지난달 고인돌전통시장에서 열린 블랙푸드 시식회에서 구충곤 화순군수 등 관계자들이 시제품을 둘러 보고 있다. <화순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 제공>

먹거리·즐길거리 가득한 화순고인돌시장 문화공연·블랙푸드 등 활성화사업 호평…국화축제와 시너지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돼 아시장 등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명품시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화순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의 화순고인돌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국화축제와 함께 빛을 받고 있다.

화순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단장 장복수)은 2017년 국화축제 행사기간(10월 28일~11월 12일) 화순군과 상인회 등과 함께 야간 공연(군 주관 14일, 사업단 주관 2일)과 무료 문화 체험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하고 있다.

행사기간 시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기념품과 경품을 주는 ‘장날 대고객 경품 이벤트’를 8일 현재까지 3차례 진행했으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플라워카드와 우드마커스 만들기 등 무료 문화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검은색 식재료를 활용한 블랙푸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시장을

찾은 미식가들을 즐겁게 했다. 블랙푸드로는 선정돼 아시장 등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명품시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화순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의 화순고인돌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국화축제와 함께 빛을 받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축제기간 사업단이 블랙푸드를 소개하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며 “화순고인돌전통시장 내 블랙푸드 거리를 조성해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한전-러시아 전력사업 추진 연계사업 협력 합의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갈루쉬가 알렉산드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을 만나 한-러 전력망 연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한전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풍부한 청정에너지를 활용하여 발전한 값싼 전기를 한국에서까지 활용할 수 있고, 양국의 경제적 이익창출과 미세먼지 감축 효과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환익 사장은 “항후 한-러간 에너지 협력을 위해서는 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공동 로드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한러 전력망연계사업관련 회의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왼쪽에서 세번째 갈루쉬가 러 극동개발부 장관, 네번째 조환익 한전 사장.

<한국전력 제공>

전남 쌀 브랜드 ‘풍광수토’ 수도권 공략

국세청, 이달까지 ‘종소세’ 중간 납부 고지

농협전남본부, 12월까지 양재·수원유통센터 릴레이 마케팅

전남농협이 전남지역 쌀 공동브랜드 ‘풍광수토’의 수도권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묵)는 전남도와 9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남농협 쌀 공동브랜드 ‘풍광수토’를 수도권에 선보이기 위해 농협양재·수원·인천유통센터에서 판촉행사를 벌이고 신규입점 밀레이 마케팅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풍광수토는 1994년 전국최초로 탄생한 광역(道) 쌀 공동브랜드다. 전남농협은 지난해 전남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상징하는 브랜드이름인 풍광수토(바람·햇빛·물·흙)만 남기고 모든 것을 바꿨다.

사용대상을 RPC(미국종합처리장) 11개로 축소했고, 품종도 신동진으로 단일화했다. 품위는 ‘상’ 등급으로 통일했다.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전남도와 함께 상반기부터 기존 풍광수토의 브랜드 이미지가 열은 수도권판매장인 농협 고양·성남·삼송·양주유통센터를 집중 공략해 신규 입점하는데 성공했다.

이흥묵 본부장은 “전남도와 함께 전남 쌀 대표 공동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마케팅과 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

자영업자 등 130만명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130만 명에게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하며 고지받은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청 없

이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고지받은 중간예납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 금융기관이나 홈택스를 통해 낼 수 있다.

분납은 고지 안내문에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 내면 된다.

나머지 분납 세액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초 분납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사업부진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세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액을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신고해 납부할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오늘 광주 30개 中企 기술인력 채용박람회

기계·설계 등 지역의 우수 기술인재 채용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원장 김재진)은 9일 ‘2017년 전문기술인력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공동주하는 것으로 광주 지역 인력양성 유관기관이 협력해 청년실업 및 제조업의 전문기술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주)세화아이엠씨, (주)무진서비스 등 지역 30여개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한다.

참가기업의 대부분이 광주인력개발원과 인력채용에 대해 협약이 체결된 곳이며 이들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직무 중심 교육훈련을 통해 양성한 만큼 우수한 인재 채용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박람회 참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견학을 통해 취업희망 기업에 대한 상세정보도 제공한다.

/김대성기자bigkim@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